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3584.55	↑ 코스닥	760.49
	(-26.05)		(+1.00)
↓ 금리 (미국 9년)	2.554	↑ 환율	1428.70
	(-0.037)		(+7.70)

‘도전과 혁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5주년

전동화·SDV 앞세워 미래차 리더로

(소프트웨어 중심 차)

팬데믹 넘어 ‘글로벌 톱3’
품질·기술·브랜드 ‘3박자’
매출·이익 모두 사상 최대
美고율관세·中리스크 과제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5주년을 맞았다.

2020년 10월 코로나 19 팬데믹과 공급망 위기 속에서 출발한 정의선 회장의 5년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취임 이후 친환경차를 앞세워 글로벌 완성차 ‘빅3’로 성장시키고 일반 자동차 회사의 개념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선두로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근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율 관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는 정의선 회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동차산업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위기를 전략적으로 헤쳐나가며 현대차그룹의 질

적 성장을 이끌었다.

정 회장 취임을 기점으로 현대차·기아의 합산 매출액은 2019년 163조 8924억원에서 2024년 282조 68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합산 영업이익은 5조 6152억원에서 26조 9067억원으로 380% 급증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매해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올 상반기

극도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13조 86억원의 합산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사상 처음 글로벌 2위에 올라섰다. 영업이익률은 8.7%로 폭스바겐(4.2%)을 비롯한 경쟁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2배 이상 상회했다.

정 회장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연구 및 혁신 허브인 국내에 올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0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제품 개발, 핵심 신기술 선점, 전동화 및 SDV 가속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2025년 기아EV3까지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받은 글로벌 어워드만 25개다. 차량 안전성, 친환경성, 고성능,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 등 모두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수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수소 밸류체인 모든 단계에 솔루션을 제시하며,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실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자동차 회사에서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SDV), 수소, 로봇,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모빌리티 그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취임 이후 고객, 미래세대, 나아가 모든 인류의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정의선은 “혁신은 인류를 지향해야 하며, 진정한 진보는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 포럼’ K바이오 패러다임의 변화 독자적 기술로 혁신 주도

차세대 바이오 혁신을 이끌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오는 10월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보유한 인벤티지랩과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각자의 독자적 기술을 소개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플랫폼의 임상적·산업적 가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주목을 받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개발 ▲국정과제로의 동물대체시험법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기업, 그리고 일반 청중에게 혁신 기술과 산업 전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 제 :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 2025년 10월22일(수)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참가신청 : 2025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l.co.kr

metro[®]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6.05포인트(0.72%) 내린 3584.55로 장을 마감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종가가 보이고 있다. 코스닥은 1포인트(0.12%) 오른 860.49에 장을 마쳤다. 장중 1430원을 돌파한 원달러환율은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자 오후 3시30분 기준 1425.8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시스

美中 관세전쟁에 코스피 3600선 붕괴

韓日 등 아시아 증시 직격탄
환율 치솟자 당국 구두개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단진 ‘관세 100% 부과 예고 폭탄’에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는 13일 1% 가까운 하락 폭을 보이며 주저앉아 3600선을 내렸다. 외환시장도 출렁였다. 원화 가치가 장 중 1430원대

까지 하락하자 외환당국은 1년 6개월 만에 구두개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관련기사 13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2% 내린 3584.55로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 225, 홍콩 항셱지수, 대만 가권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모두 하락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 1일(현지 시각)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우려 확대

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됐다. ‘트럼프 트리거’(자유무역→전략적 보호무역) 공포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도 상무부 대변인이 나서 “미국이 고집하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며 협상 여지

를 남겼지만,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달래지 못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른 1425.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 중 원화 가치가 1430원대로 급락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흔들림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두개입했다. 시장에서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평균 환율이 1400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中으로 새는 K-반도체 기술 숨방망이 처벌이 불씨 키워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시급

국내 반도체 기술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숨방망이 처벌’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산업통상부의 ‘2025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해외 유출 산업기술 105건 중 반도체 분야는 4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팀을 꾸려 메모리 공정 기술을 유출한 사건의 추산 피해 규모는 4조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정부가 전폭

적으로 지원하며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에는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CXMT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최초의 18나노 D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 기술이다. 이들은 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중국 CXMT로부터 4~6년간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억~30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여야, 국민·국가 위한 길 함께 해주길… 정부도 국가감에 적극 협조” /사진 뉴시스
- ▲국회 외통위, 22일 캄보디아서 현장 국가감… ‘한국인 범죄’ 대응 점검

- ▲오세훈 “조국,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혼수… 참 답답해”
- ▲안규백 “주한미군 최우선 임무는 대북 억제… 비상계엄은 내란”

- ▲김윤덕 국토장관 “추가 대책서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 ▲배경훈 부총리 “日 노벨상 부러워만 할 때 아냐… 기초과학 제대로 투자해야”